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

안 선 경·양 숙희

숙명여대 의류학과

The Concept of Ugliness Expressed in Modern Dress  
—Form the Middle of 1980's to 1994—

Seon Kyoung Ahn · Suk Hee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4. 9. 1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phenomenon related to the subjectivism of aesthetic value for dress, which is impossible to describe with only functionalism, practicalism and objectivism of aesthetic value for dress based on Karl Rosenkranz's theory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from the middle of 1980's to present. In other words, the ugliness had been selected and erected as the opposite meaning of beauty to haed toward ultimate beauty, and clarify that ultimate beauty is achiev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beauty is achiev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beauty and ugliness. First, the ugliness and Rosenkranz's theory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had been examined theoretically in the aspect of the subjectivism of aesthetic value for dress and aesthetic catego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ic styles related to ugliness, such as Avant-garde, Primitivism of Expressionism, Grotesque, Decadence, Kitsch, Pastich-Parody, from the late 19c to present, and the dresses representing the ugly look such as Cyber Punk, Exotic look, Détester, Grunge, Hiphop, etc, of 1990's had been studied by using photographic materials. In this study, the basic concepts of ugliness, including formlessness, inaccuracy and deformation, formed by K. Rosenkranz had been used to reveal the interaction between modern costume and the theory of ugliness.

I. 서 론

오늘날 복식은 한 시대의 회화, 건축, 조각 등 타 예술분야의 시각적 조형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주제와 일치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형예술로 보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억압된 것들의 복귀' 현상으로 인해 그 동안 무시되거나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개념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부상하고 있다.

주관주의 미론(美論)의 대두로 인해 현대 예술에서 미적 인상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전체의 생명감을

높여주는 자극제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추(醜)는 그 자체가 미적 범주의 체계에 있어서 최대한의 불쾌와 불협화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의 미, 즉 '순수미'(純粹美)와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진다. 미적 범주론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의는 특히 오늘날의 예술상황에서 볼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학(美學)과 예술학(藝術學)이 독자적인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19세기 이후, 1853년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Ästhetik des Häßlichen)을 통해서 추의 미적 가치가 더욱 확고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추의 개념은 미학 뿐 아니라 예술양식 전반에서도 꾸준히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을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볼 때 추가가 복식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펑크 패션<sup>1)</sup>(Punk fashion), 앤티 패션<sup>2)</sup>(Anti fashion), 초현실주의 패션<sup>3)</sup>등의 연구로 인해 현대복식에 있어 추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20세기 말의 복식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미학적, 예술양식적 입장에서 '추'의 개념에 관점을 두고 실증적 연구로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 1994년 까지의 복식을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절대미(絕對美)는 미와 추의 조화 속에서 완전화 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선 미적 범주에서의 추와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광의로서의 추의 개념을 19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의 예술양식과 1990년대 현대복식의 특징적인 룩(Look)을 실증적 사진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추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로젠크란츠의 물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을 통해 재정의 해봄으로써 현대복식에서 '추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II. 로젠크란츠의 「추의 개념」

### 1. 미적 범주에서의 추

고대 흐립시대에 있어서 추는 미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악(惡)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배척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흐극의 주제를 논하는 가운데,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

는 실수 또는 기형으로서 우스꽝스러운 것을 추의 일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up>4)</sup>.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의하면 악이나 추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대상에 의해 미를 더욱 풍부하게 부여하는 하위 개념적 요소이다. 그러나 문예부흥기 이래로 추가가 점차 예술의 세계로 들어옴으로서 미학에 있어서도 추의 미적 의의를 용인하기 시작했다<sup>5)</sup>. 이처럼 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단시 되어 왔던 여러 개념들에 조명을 비추는 경향은 근대 예술의 반고전주의적 경향과 시대정신 일반의 현실주의적 풍조로 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는 생물학적인 질병적 개념으로, 윤리학에서의 악(惡)의 개념 혹은 법률학적인 비정당성의 개념이나 종교에서 죄악의 개념으로부터 발생된 것이었다.

최근에는 립스(Lipps)의 미학에서 추는 '소극적인 감정이입'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를 한층 더 인상 깊고 눈에 띄게 하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미에 서는 직접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되며, 또한 미가 그 것에 대항하고 자기를 주장함으로서 그 힘을 나타나게 한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sup>6)</sup>.

각 시대는 실제적 세계와 자신의 이상적 결합속에서 미를 찾았으며 이를 토대로 모든 가치에 대한 전도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미는 언제나 역사적으로 제약되었으며 가변적이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고유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 혹은 추에 관한 절대적이며 초민족적인 규준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추에 관한 공통된 일반적 특징을 요약한다면, 대체로 추

- 1)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2) 이정후,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앤티패션(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3) 최윤미,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 1993, pp. 137-149.
- 4) 백기수, 「미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 100
- 5) Theodor W. Adorno, 홍승용(역), 「미학이론」(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p. 82-89.
- 6) 논장편집부, 「미학사전」(서울: 논장, 1988), p. 405.

는 미적 범주의 체계 가운데서 그 자체 순수미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최대한도로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추의 참여로 인해 대상에 대한 활기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생활감을 주는 자국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고통과 함께 특수한 쾌감을 유발한다.

## 2.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헤겔(Hegel)은 예술형식의 변증법을 파괴와 동시에 보존을 통해서 비로소 화해에 이르게 되며 자유 속에서 대립을 화합시키는 통일성에 도달한다고 보았다<sup>7)</sup>.

「추의 미학」(*Ästhetik des Häßlichen*) 연구로 예술에서의 추개념을 체계적으로 양식화한 헤겔학파의 한 사람인 로젠크란츠(K. Rosenkranz : 1805~1879)는 변증론적인 정(正 : Thesis), 반(反 : Anti-Thesis), 합(合 : Synthesis) 속에서 그의 미학개념을 완성시켰다.<sup>8)</sup> 다양한 집합체 속에서 진실된 자유성이 총체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미의 형이상학적 이상이 실현되고 절대적인 미로 향하기 위해 미에 대립적 부정적 의미로서 추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미와 추의 조화 속에서 한층 고양되는 진실된 이상성이 통일성으로 완전화된다고 보았으며 동일한 구별적 개념을 헤겔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추는 불완전한 미가 아니라 미의 부정이며, 따라서 추와 미는 동격의 대립 개념이다.

그는 추를 미적 대상의 형식과 내용 어느쪽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불일치성(Die Amorphie) · 불균형(Die Asymmetrie) · 부조화(Die Disharmonie)의 물형식성(Die Formlosigkeit)과 표현의 부정확성(Die Inkorrekttheit), 그리고 비속(Das Gemeine) · 혐오(Das Widrige) · 희화(Das Komische)를 내포하고 있는 왜곡(Die Defiguration)으로 구분하였다<sup>9)</sup>.

### 1) 물형식성(Die Formlosigkeit)

물형식은 쾌적 만족을 가진 명확한 인상이 형식 자

체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결말이 아닌 반대적인 결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또 다른 미로서의 승화가 가능하다. 즉 물형식은 모든 예술이 미로만 향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벗어나 반대 개념을 포함하는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서 오히려 기대된 결말 보다는 반대 결말을 가지게 되므로 형식의 규정을 존재하기 위해 지향된 형식은 제거되어야 한다.

형태의 단순한 난잡성은 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이한 것들의 조합속에서 우연한 상호관련을 통해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균형(Die Symmetrie)은 형식의 질적인 개별성을 부정하고 동일 척도를 훼손하므로 추한 것이 되고 이는 조형예술에서 잘 나타난다. 불균형은 균형적인 부재에서 이미 난잡성이 있고 난잡성 속에서 한 형식이 다른 것을 억압 소멸케 한다. 균형의 반대적인 대조를 통하여 균형이 부조화 속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조화는 추한 것이라도 불가피한 동일한 구별이 있을 때 미가 되고 우연적 부조화에서 추한 것이 된다. 균일한 비례는 미적 형태가 아닌 그 균일함으로 인해 시각적인 지루함을 갖는다. 조화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종속적 대칭과 규칙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부조화는 흥미를 일으켜서 인식된다. 미는 모순과 통일에서 재차 해체되어 미적 반대의 구분이 될 때까지 구별을 전개하고 이분화의 해체를 통해 비로소 조화(Die Harmonie)가 나타난다.

### 2) 부정확성(Die Inkorretheit)

부정확성은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를 의미하며, 예술적 불완전을 말하고 왜곡과 함께 부자유성에 근본된 것이다. 개념을 가진 실체성의 조화, 규범의 객관적 감정의 조화는 정확성을 이끌고 정확성은 규범적 본질, 형식에 향한 것으로 개념적 정확성이 아니거나 정확한 본질이 아닐 때 변화를 가져온다. 아카데미한 정확성은 때론 고통적인 것이며 추한 것으로 표현된다.

모방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경험과 이념적 형태, 보편척도를 통해 적당한 표현으로 탈성되는 '우연성'과 '임의성'을 통해 발견된다. 물리적 정확성은 보다 확정적인 것이다. 자연의 모방은 보편적 능력이 아니라 진실된 부정확성의 것이다. 심리적 정확성은 자연적 질서로서 정서에 싸여 표정, 단어의 인상을 갖는다. 부정확성의 인식은 비평적 계기로서 나타나 과잉 속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만든다.

7) Thomas Metscher · Peter Szondi, 여균동 · 윤미애(역), 「헤겔미학입문」(서울 : 종로서적, 1983), pp. 189-192

8) 백기수, op. cit., pp. 100-107

9) H. Glockner, Karl Rosenkranz und K. Fischer als Ästhetik der Hegelschen Schule (1931), S. 443-453

물형식과 부정확성은 처음에 부자유안에서 자신의 정점을 달성하고 절대적 아름다움의 품위와 우아를 상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비로서 형태의 손상이 주어진다.

### 3) 왜곡(Die Defiguration)

왜곡의 기괴함은 필수적인 순서로서 각각 구별적 단계를 갖고 있다. 미적인 것에 대하여 추한것이 적극적인 전제를 가지는 것과 같이 탁월함 대신에 비속적인 것, 온화한 것 대신에 혐오가, 이상적인 것 대신에 회화가 나타난다. 왜곡, 비속한 것으로서 추한 것의 마지막 근거가 부자유에 놓여 있다. 부자유는 특징적인 것을 개별성의 한 유익한 측면으로 자신을 이분화 시키고 자신의 가상 실재성과 화해된 것으로 존재하며 이의 보순성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웃음을 주고 절대적인 미개념으로 형성된다<sup>10)</sup>.

## III.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

### 1. 아방가르드(Avant-Garde)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불어로 전위(前衛)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군사적인 용어였지만 후에 프랑스 사회주의가 대두할 때에 사회주의자 생 시몽(Saint Simon)이 사회적인 저항세력의 선두를 지칭하는 용어, 즉 정치적, 혁명적인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기존관념 체계에 저항하는 용어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sup>11)</sup> 이 용어가 예술에 적용된 것은 1850년대인데, 당시는 유미적인 경향의 예술조류에 반발하여 그로테스크한 것, 추한 것, 비정형적인 것, 탈윤리적인 것 따위를 예술에서 표현하였다<sup>12)</sup>.

아방가르드의 심리적 미학적 특성은 미래주의의 역동성과 반전통주의와 반대중주의에서 나타나는 격대성, 실험주의와 과학주의의 실험성, 기계주의의 비인

간성, 유모어 주의의 해학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sup>13)</sup>.

전위미술의 가장 특징적이고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전통과의 단절”이다. 전통과의 단절은 새 역사 탄생의 필연적인 전제이며 서양미술의 오랜 역사를 통해 나타난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sup>14)</sup>. 이러한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 ‘전통과의 결별’ 그리고 그것이 결과한 ‘혁신과 새로움의 추구’,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은 20세기 초라고 하는 격변의 시기에 예술가들이 각기 다른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속에서 격렬하게 추구해나간 전위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sup>15)</sup> 또한 아방가르드는 유달리 비타협적인 태도로 모든 예쁘장한 것, 마음에 드는 것, 폐적한 것 및 아무 지장도 없이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피해 왔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시각에서 파악된 20세기 초, 전위의 개념은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전위의 개념, 즉 ‘회복’의 전위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복식에서 가장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특징적인 것은 사이버펑크(Cyber Punk)이다. 사이버펑크의 사전적인 의미는 20세기의 통신 및 제어 이론이던 인공 두뇌학(Cybernetics)과 기존사회에 반항적 성향을 띤 펑크(Punk)의 합성어이다. 사이버펑크족은 바로 첨단 과학시대의 컴퓨터 세대로 PC통신을 통한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에 심취해 있는 무리를 일컫는다. 일종의 신세대 문화표현의 하나로 펑크, 히피에 이어 사이버펑크가 이어진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히피는 60년대에 생겨나 섹스와 마약 록 앤 룰을 즐기며 반전운동을 했다. 펑크는 영국 경제불황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70년대 후반 런던에서 시작, 많은 젊은 실업자들의 울분을 표출한 거리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사회 반항세력이라는 데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히피족이 자연을 주장한 반면 사이버펑크족은 과학을 이용한 것이다. 사이버펑크족으로 대별

10) 윤순향,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5), pp. 37-66

11) Matei Calinescu, 이영옥 외3명(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서울 : 시각과 언어, 1993) pp. 125-157

12) 친재우, “현대 예술 사조가 조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pp. 83-84

13) 김원갑, “현대 건축 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1), pp. 69-76

14) Ibid, p. 18

15) Arnold Hauser, 최성만·이병진(역)「예술의 사회학」(서울 : 한길사, 1991), p. 335

되는 신체충의 특징은 다분히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인 관계나 사회성에서 소극적이다.

이제 한 계층문화를 일컬는 사이버펑크의 영향은 패션으로까지 옮아가 패션리딩 그룹의 화제를 놓고 있다. 기계문명적 요소를 복장에 까지 강조하고 금속제의 액세서리를 필수적으로 곁들이는 사이버펑크 패션 (Fig. 1)이 한국에 유입되어 소수의 젊은이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sup>16)</sup>. 패션에서 받아들이는 사이버펑크는 물론 갑자기 등장한 신조류라고 단정할 순 없다. 이미 히피, 평크족의 패션문화가 부분적으로 이어져 왔고 아방가르드 감각을 지닌 디자이너들의 요소요소에서 보여져 왔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펑크족이 추구하는 패션 경향도 기존의 평크와 유사점이 많고 과거의 모습에서도 힌트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젊은층의 암도적인 인기를 보유로 있는 '쿠기', '스톰오브런던', '안전지대' 등의 브랜드들이 사이버펑크의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다<sup>17)</sup>.

## 2. 표현주의(Expressionism)의 원시성

르네상스 이후 예술가들은 이성에 집착한 나머지 사



**Fig. 1. Avant-garde**  
Thierry Mugler (89s/s, GAP, p. 218)

16) 김명환, 「사이버펑크」, 『조선일보』, 1993년 11월 26일.

17) 「섬유저널」 1994년 2월, pp. 82-86

물을 분석하거나 정화하게 표현하는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현실과 멀어지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인간이 복잡한 기계문명에 회의를 느끼고, 사실주의 전통에 한계를 느낀 20세기에 와서야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게 되었다<sup>18)</sup>.

'표현주의'라는 말은 처음에는 인상주의에 반대되는 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현주의는 반자연주의적인 형태와 색채에 의하여 전달되는 세계에 대한 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통하여 관람자를 감정적, 정신적으로 감동시키고자 하는 경향이었다.

표현주의 미술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중시하며, 많은 현대 미술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성향, 즉 질서를 무질서로, 미나 비례를 추구와 왜곡으로, 미리 설정된 의미의 명확성을 모호성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비정상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철학적으로, 창조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인간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험들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표현주의의 공통된 이념 중에는 원시예술 혹은 조각과 같은 이국의 예술에 큰 관심을 갖는가 하면 유아미술, 민속예술의 본질인 소박성을 사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를 서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며 동시에 서구 중심의 미의 척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또 서구의 문화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다. 원시예술의 소박하고 단순한 형체 속에서 화려하고도 과기적인 생명력의 표현을 알차게 받아들여 정열과 본능을 풀어주는 상정을 실생활에 연결시켰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인간에 관한 절대적이며 근원적인 것을 간직하려고 하였다<sup>19)</sup>.

본래 생태학의 뜻을 지닌 패션 테마 에코로지 (Ecology)는 오염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켜 편안하고 체��되지 않은 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시대 인들의 공감대가 표현된 것이다. 즉 '자연과 인간, 평화'라는 우리 시대인들의 바램이 패션을 통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 동안 중요하게

18) 이명재, "현대미술에 있어서 원시적 상징성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1), pp. 31-45

19) 양희석, 「예술철학(하)」(서울: 자유문고, 1988), pp. 218-238



Fig. 2. Primitivism of Expressionism  
Yves Saint Laurent (91s/s)

나루어지지 않았던, 오히려 하위 문화로 인식되어온 원시적, 자연주의적 경향은 오늘날 복식에 있어 엑조틱 룩(exotic look)으로 인간성 회복의 표현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Fig. 2).

### 3. 그로테스크(Grotesque)

1957년 독일 비평가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iser)가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를 출간함으로써 비로소 그로테스크가 주목할 만한 미학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테스크는 괴기스러우리만큼 추악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모양이라는 뜻이다. 중세에는 동유럽, 특히 세르반의 독일지역에서 만들어진 글씨체인 고딕(Gothic) 체의 글자 모양을 비웃는 말로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는 아라베스크(Arabesque: 아라비아풍의 기이한 당초 무늬)의 꽈이한 꽃이나 잎사귀의 문양, 또는 사람의 모습들을 난 삽하게 꾸민 모양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18세기 초엽에 이르러 일반적인 의미는 형용사로 ‘우스꽝스러운’, ‘뒤통그려진’, ‘부자연스러운’, 명사로는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이었다.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로 첫째, 부조화는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징으로, 길동·충돌·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둘째, 그로테스크는 희극적인 것과 꿈칙스러운 것 혹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것, 골치아픈 즉 혼사리 풀 수 없는 일종의 혼합형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세째, 그로테스크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것이고 그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장과 극단이다. 네째, 그로테스크에 대한 고전적인 반응으로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의 유형 분석을 해보면 인체에 대한 파괴와 변형으로, 인체 파괴에 대한 잔인한 묘사와 섬뜩한 암시는 확산해져 가는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공격성과 가학적 충동으로 야기되는 인간 본능의 폭력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꿈이나 동화적 이미지인 환상적 표현, 현대의 정신 세계가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Fig. 3. Grotesque Illustration  
VIRAMONTES (流行通信, p. 24, 1989)

이질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Fig. 3).

그로테스크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 기능을 공격성, 소외, 유희성, 충격효과가 있다<sup>20)</sup>. 21세기를 앞둔

20) 이건모,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9), p. 23

오늘의 패션으로 새로이 피져나가고 있는 '드라큘라 패션'이나 '악마주의 패션'이 그로테스크한 모양으로 두드러진다(Fig. 4). 일본에서 짚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줄리아나 패션'<sup>21)</sup> 바람을 그로테스크한 모양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세기의 끝무렵에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그로테스크는 넓게는 反패션, 안티패션으로 풀이하며 다른계는 퇴폐적인 모양으로 해서 데카당스의 모양으로 풀이 한다.



Fig. 4. Grotesque  
Saint Morquillas (87, Collezioni, p. 258)

#### 4. 데카당스(Decadence)

1880년대에는 사람들이 당대의 심미적 쾌락주의를 <데카당스>(Dekadenz, décadence)라고 불렀다<sup>22)</sup>. 19세기의 '불투명', '불안', '의문'등은 경제적, 정치적 격

21) 줄리아나 패션의 배꼽이 드러나 보이는 T셔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아슬아슬한 짚은 미니스커트, 온빛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쇠붙이 벨트로 꽉 조여맨 허리와 엉덩이, 손잡이가 되어 커다랗게 매달린 귀걸이를 혼들거리며 '줄리아나 도쿄'에서 밤이 새도록 춤을 추는 짚은이들의 웃차림과 삶의 모양을 말한다.

22) Arnord Hauser, 백낙청·염무옹(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4), p. 187

변이 넣은 문제였다. 여기에서 상징주의는 19세기말의 특징적인 예술사조로 등장하게 되는데 인간 의식구조와 삶의 질적 변화 그리고 자본주의 성숙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19세기 정치적 불안 등은 도파적인 상징주의 예술의 배경이 됨과 동시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예술을 가능케 했다<sup>23)</sup>.

상징파는 신비성과 악마주의와 데카당스로 알려졌다. 또 그것을 세기말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24)</sup> '데카당스'와 '세기말'적 경향은 문화의 몰락과 위기를 뜻하며, 생명의 전진의 종말이라는 문명 붕괴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기성적인 것의 파괴이며, 모든 옛 것에서의 탈출이다. 따라서 그들은 괴이·취미, 이국·풍정, 악마주의, 유미주의 경향을 보였다.

20세기 초에 변화된 여성미학은 에로티시즘에 반영되었다. 이 당시를 설명하는 패션과 미술에 대한 저술가들은 특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든지 배후, 마력과 같은 성적 매력을 내포하는 특성들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미의 에로틱한 요소들을 점차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의 많은 여성상이 근복적으로 순결과 악덕이라는 이원론을 표현하고 있다<sup>25)</sup>.

퇴폐와 쇠퇴로 사회가 기울어지는 때를 세기말적인 현상으로 말한다. 신·구세기가 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기말 현상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일어나는 질서의 파괴와 신·구세대의 갈등에 따른 윤리 도덕의 타락 현상과 그에 따른 성도덕의 문란과 쾌락·향락주의의 만연으로 나타난다. 현대에도 세계 예술의 영화, 팝 음악, 출판계 등에서 섬뜩하고 황폐한 현대의 정신 세계에 일맥을 둔 작품들을 '세기말적 현상'의 하나로 보려는 분석이 나왔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 패션에서도 다시 퇴폐적인 느낌의 옷모양이 보이고 있다.

데메스떼(Détester)는 깨끗한 것, 세련된 것, 우아한 것 등에 맞서 보여지는 더러운 것, 추한 것들에 비겨지는 악취미의 모양을 말한다. 데메스떼는 '혐악',

23) 이창윤, "19세기 상징주의 회화와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3), pp. 3-5

24) 양희석, op. cit., p. 118

25) 양숙희,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pp. 12-14

‘중오’를 뜻하는 말이다. 미와 추는 그 나눔이 패션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비교되는 이 말 또한 세기말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신경질적인’이라는 말뜻의 광고용어에서 비롯된 모양으로 뉴로틱패션(neurotic-fashion)이 있다. 밝고 건강한 느낌의 모양이 아니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며 창백한 화장이 라든가 뼈대, 해골, 근육질, 신경선 등을 모티브로 한 모양이 여기에 보인다<sup>26)</sup>. (Fig. 5)는 해골과 여성의 머리카락이 세기의 종말적 특유의 분위기를 암시한다. 일본의 3S패션은 속물적이라는 뜻의 스노비즘(Snobism), 섹스어펄한다는 뜻의 선정적인 섹슈얼(Sexual), 거칠고 강해서 야성적이다라는 스트롱(Strong) 등 세가지 말의 머리 글자를 합성한 것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느낌이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지나치게 느끼도록 하는 일본의 3S패션은 70년대 영국에서 비롯되어 퍼졌던 평크 패션의 리바이벌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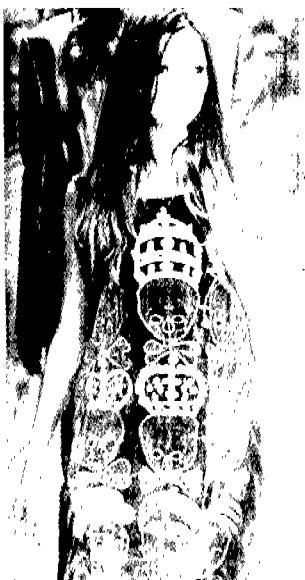


Fig. 5. Decadence  
Helmut Lang (93s/s)

### 5. 키취(Kitsch)

키취는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산된 출속하고 저열한 예술작품을 가리킨다. 전위예술인 아방가로드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예술적인 새로운 문화 현

상이 서구 산업사회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을 독일인들은 키취(Kitsch)라고 불렀다. 키취라는 말이 유래한 독일에서 키취는 ‘잡동사니(Schund)’나 ‘천박한(Trivial)’과 같은 수많은 동의어 혹은 유사 동의어를 갖고 있다<sup>27)</sup>.

키취의 기본특성은 미완성적인 것에 있다. 입수 가능하기 위해서 키취는 비교적 값싸야 한다. 키취는 쓰레기나 폐물로 여겨질 수 있다. 어떤 것을 키취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혐오스럽고 비위에 맞지 않는, 혹은 심지어 낌더리가 나는 것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방식이다. 키취는 항상 미적 부적절성의 개념을 함축한다.

1960년대에 들어와 날로 팽배해지는 테크놀로지적 변화와 대중매체의 증식은 추상표현주의를 뇌조시켰으며, 반대로 새로운 미술, 즉 팝 아트 운동을 고무시켰다. 개인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그 위용을 상실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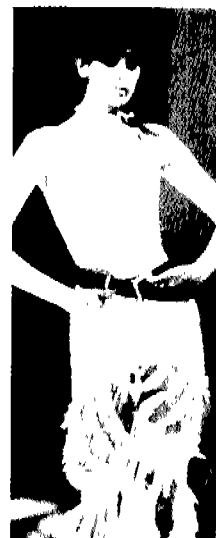


Fig. 6. Kitsch  
Vivienne Westwood (92s/s, Collezioni, p. 108)

26) 「패션문화」, 1993년 가을호, pp. 36-37

27) Matei Calinescu, 이영욱(역), op. cit., pp. 291-293

28) 서성록, “고급예술과 대중문화, 예술과 삶의 거리좁히기 : 후기 산업社会의 팝아트”, 「현대미술의 구조 : 환원과 확산」(서울 : (주)A.P.I., 1993), pp. 185-199

되었고, 한편으로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광고산업의 내용물을 평범한 것으로 보편화 시켰다<sup>29)</sup>.

미적 가치의 세계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키워는 대중취향에 부응하고(안락함), 자본주의 논리(수익성)에 따라야 하며, 소비문화의 주기(유형)에 맞추어야 하는 디자이너의 작품이 키워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일는지도 모른다. 키워의 특색들은 대중적 취향을 건드리는 복고풍, 최신형, 이국적인 것, 미래파적인 것 등이다<sup>30)</sup>.

지난 60~70년대 팝아트의 바람을 타고 몰아쳤던 팝 패션 거지모양의 히피룩이 이제 새로운 거지모양, 그런지 룩(Grunge Look)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Fig. 6) 낭만한 차림이 핵심인 그런지룩<sup>30)</sup>의 기승도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지 룩은 네오 히피룩(Neo Hippie Look)으로도 통용되는데, 90년대의 히피풍은 반항적이라기 보다는 한결 부드러우면서 소재, 디자인 등이 고급화되어 세련된 느낌을 준다. 물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히피들의 이념과 현대의 에콜로지 테마는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90년대의 네오 히피 스타일은 특히 폐미난하고 부드러우며, 어느정도 옐레강스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힙합(HIPHOP)이란 랩(Rap)을 들려싼 라이프 스타일로서 옷의 착장이라든지 특별한 신조어가 섞인 어법, 춤 등을 일컫는다.<sup>31)</sup> 힙합 스타일은 뉴욕 빌리지나 브롱크스에서 젊은이들이 입는 캐주얼웨어를 말한다. (Fig. 7) 착용에 있어서 특정한 규칙이 없이 겹쳐 입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정치 못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으로 진(Jean)을 골반에 걸쳐 입고 속옷을 거



Fig. 7. Kitsch-Hiphop  
Hugo Boss (94s/s, Uomo Collezioni, p. 324)

리낌 없이 보여준다든지 바지를 앞 뒤 거꾸로 입는 경우도 있다. 바지에다 XL 사이즈의 티셔츠, 트레이너, 필드 재킷, 머리에는 야구모자, 신발은 힙합 스니커즈(HIPHOP SNEAKERS)를 신고 있다. 언어로써 사회에 대해 불평을 하는 음악에서, 옷으로 기존 관념을 뒤엎는 것까지 젊은이들은 부수고 깨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

#### 6. 패스티쉬·파로디(Pastiche · Parody)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잠재되어 있는 회귀의식을 일깨우고 현재의 분열된 자아를 과거를 통해 통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미래, 풍요, 행복, 야망, 청결 등의 패러다임이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과거, 결핍, 불행, 더러움, 추함 등은 오히려 현실의 일탈을 보장해주는 기호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복고는 현재의 안정을 보장하는 일탈의 요소인 것이다. 현실적 불안의 해소가 현실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과거의 결핍에 의해서 이루어진 패스티쉬(pastiche : 혼성모방)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낯익은 명화나 대중적 이미지를 작품에 부분적으로 차용, 인용, 변안, 각색하는 창작 방법론이다. 쉽게 말하면 남의 작품에서 이미지를 따오되 독창적으로 짜집기(혼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남의 작품을 자기 것처럼 속이는 표절이나 도용과는

29) 정진국, "사진 이미지와 키치의 그늘", 「예술과 비평」 1990년 제20호 여름, pp. 27-45

30) 그런지(Grunge)의 어원을 살펴보면, 미국 시애틀은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기온이 낮고 습하다. 몸을 보호하고 습기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벌의 옷을 겹쳐 입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가난한 음악가들은 값싼 중고 의류를 꺼입었고 그들의 독특한 차림은 그런지 룩이라고 불리웠다. 이들의 거지 같은 차림은 마음껏 춤추고 뛰어다닐 여유가 있어 활동적인 젊은이들과 진보적이고 얄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31) Jay Cocks "Rap-Around the Globe", 「TIME」, october 19, 1992, pp. 50-51

명백하게 다르다.

페로디는 일종의 비평형식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기법으로 이미 잘 알려진 원작을 우습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모방하여 익살과 풍자,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나타내는 양식이다<sup>32)</sup>.

테오도르 베르웨인(Theodor Verwegen)은 패로더의 이론들을 두개의 법주로 분류했다. 즉 회극적 성격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패로디와 비평적 기능을 강조하기를 선호하는 패로디이다. 양쪽 견해의 공통점은 희화의 개념이다. 역사성의 상실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가 패로디와 대별되는 패스티쉬이다.

복고는 유행으로 점철되는 순화의 고리 속에서 현실을 대체하는 사상적인 사실들을 나열한다. 따라서 과거적 사실의 의사 체험 속에는 비판과 실천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환영의 감동과 추억의 반추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현실의 불투명한 일상에 매몰되어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할수록 가까운 지난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과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sup>33)</sup>

복식 아이템을 과거로부터 차용하거나 명화의 내용을 복식에 도입하여 단순한 재현이 아닌 복식을 조형 예술의 차원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승화시킨다(Fig. 8, 9).

이상에서 살펴본 6가지 복식조형에 표현된 추를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 IV. 현대 복식과 로젠크란츠의 「추의 개념」

##### 1. 현대 복식에 표현된 물형식성·부정확성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은 미학적 차원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추의 범주를 다루고 있으나 복식조형의 차원에서 현대복식을 정확히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일반을 위한 절대적 규범인

32) 고현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p. 8

33) 김진중, 「미술공예」, 1993년 7월, pp.38-41

34) 김옥동, 「포더니즘과 포스트포더니즘」(서울: 현암사, 1992), pp. 190-193



Fig. 8, 9. Pastich·Parody  
Henri de Toulouse Lautrec (1896)  
Jean Paul Gaultier (1990)  
(Infra Apparel, N.Y.,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물형식성을 복식의 외재적 의미로 보았으며 물리적·심리적 부정확성에서 심리적 부정확성을 현대의 사회, 문화 전반적 상황에 비추어 복식을 도입하여 내재적 의미로 파악해 보았다. 즉 보편성, 객관성 등 외적 형식의 문제인 물형식성과 정신적, 내용적, 주관성의 문제로 다른 내적 형식의 부정확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실존적 위기의식과 소외감, 고립감과 같은 주제에서

&lt;표 1&gt; 복식조형에 표현된 추

내용 형식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키 쥐	페스티쉬 페로디
패션의 특성	해학성 실험성 미래적 충격효과	단순성 (추상·생략) 미숙성 왜곡	공격성 유희성 과장 충격효과	혐오 세기말적 엽세주의 이국취향	봉속성 비속성 대중성	모방성 풍자성 유희성
1990년대 대표적 LOOK	사이버펑크	엑조틱 LOOK	악마주의 LOOK 줄리아나 패션	데메스메 뉴로틱패션 3S 패션	그린지 LOOK HIPHOP	복고풍
관련 미술양식	다다 임체파 미래파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야수파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아르누보	팝아트	모든 미술 양식이 가능
대표적 디자이너	Michiko- Koshino Thierry- Mugler	Fendi Ozbek	Romeo Gigli Jean Paul- Gaultier Alexander- McQueen	Helmut- Lang Corinne- Cobson	Dolce& Gabana Vivienne- Westwood Gianni- Versace	Yves Saint -Laurent Kansai- Yamamoto
공통점					전통성 거부 — 미래 지향성 세기말적 현상 충격 효과 무형식성 · 부조화 단순성 유희성 인간성 회복 대중성 지향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계승적인 관계에 있다. 1차대전 후 많은 사람들은 극도의 위기의식과 비극적 상실감을 느꼈으며, 이런 위기 의식이나 상실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르러 한결 더 첨예하게 되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것들의 복귀' 현상은 그동안 가부장적 제도적인 모더니즘의 권위 아래에서 주변적인 위치 밖에는 차지하지 못하면서 억압되었거나 무시되어온 것들이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sup>34)</sup>.

로젠크란츠의 이론에 의하면 불일치는 형상의 반대, 즉 일반적인 정신적 가치의 반대 현상으로 복식에서는 불일치 현상을 패션쇼의 충격효과, 성의흔돈, 퇴폐성

으로 보았다. 불균형성은 균형이 형식의 질적인 개별성을 부정하고 질적인 동일 척도를 폐손하므로 추한 것이 되고 이는 조형예술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복식에서 불균형성은 복식의 외적 표현에 있어 기능성을 무시한 추의 특성으로 불 수가 있다. 주로 복식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와 원리에 위배된 현상인 디자인 원리의 문제, 위치전환, 구성의 의도적 미숙성, 소재상의 문제로 복식의 불균형성을 분류하였다. 부조화는 추한 것이라도 불가피한 동일한 구별이 있을 때 미가 되고 우연적 부조화에는 추한 것이 된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므로 복식에서는 전체적인 실루엣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추의 특성을 차의의 모순, 신체과장으로 분류하였다.

&lt;표 2&gt; 현대 복식에 표현된 K. Rosenkranz의 물형식성과 부정확성

		물형식성	부정확성
불 일 치	패션쇼의 충격효과	모델의 비한계화, 패션쇼 진행상의 연극적 요소 도입	패션쇼의 진행상의 행위의 충격을 통해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내면세계를 적극적으로 표현(Fig. 10)
	성의 혼돈	여성의 남성 상징물 착용 남성의 여성 상징물 착용	성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성적 이상미의 변화(Fig. 11)
	퇴폐성	속옷의 외의화, 퇴폐적 분위기	상표노출로 인한 파시적소비, 지나친 에로티시즘 강조(Fig. 12)
불 균 형	디자인 원리의 문제	디자인의 탈형식화, 디자인요소의 복잡성	기존의 복식디자인의 원칙을 무시하였으나 새로운 표현으로 수용 가능성 제시(Fig. 13)
	위치 전환	복식 구성 아이템의 위치 문제, 메并不意味 효과	의복의 각 부위별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Fig. 14)
	구성의 의도적 미숙성	출기선이 밖으로 노출, 손바느질의 투박성	의도적인 poor look을 연출함으로써 파시적 위반효과, 자연주의적 경향(Fig. 15)
	소재상의 문제	오그라듬, 구김 소재의 의도적 mismatch, 계절 감각에 대한 개념 무시	자연회귀적 경향, 문명발달에 의한 복식의 신체 보호적 기능의 불필요화(Fig. 16)
부 조 화	착의의 모순	레이어드 효과에 있어 착의 순서의 비질서화	비정상적인 차장 방식을 통한 파시적 위반과 기준아이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 창조 가능성 제시(Fig. 7)
	신체 과장	신체의 축소·확대, 신체 부위별 변형으로 인한 시각적 차시 유발	복식의 과장을 통한 자아확대 개념을 넘어서 신체에 대한 실험적 태도로 절대미가 아닌 흥미 추구(Fig. 18)



Fig. 10. Shocking Effects  
Yohji Yamamoto (94s/  
s, Collezioni, p. 313)



Fig. 11. Androgynous  
(Vogue, Italia, 1993, p.  
251)



Fig. 12. Demoralization  
John Galiano (92s/s,  
Collections II, p. 120)



Fig. 13. Unbalance  
Gianni Versace (92s/s,  
Collezioni, p. 28)



Fig. 14. The Change of Apparel Element's Position  
Jean Paul Gaultier  
(93s/s, Fashion Show,  
p. 76)



Fig. 15. Intentional Poor Sewing  
Comme des Garçons  
(94s/s, Uomo Collezione,  
p. 213)



Fig. 16. Material Used in Garments  
Martin Margiela (94s/s,  
Collezioni,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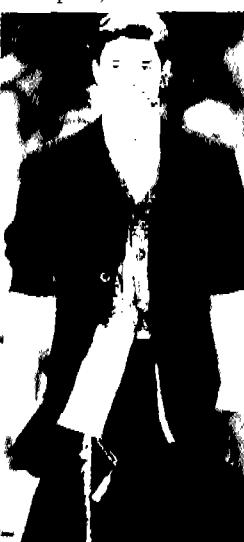


Fig. 17. Inconsistent Dressing Procedure  
Jean Paul Gaultier  
(94s/s, Uomo Collezione,  
p. 231)



Fig. 18. Deformation of Human Body Parts Issey Miyake (1988, ISSEY MIYAKE, NO.21)

이상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현대복식의 추의 개념을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 2. 복식조형과 왜곡과의 관계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에서의 왜곡은 물형식성과 부정화성과는 다른 회극적 형태인 풍자(Die

Karikatur)의 의미로서 추한 것의 개념에서 확장적 기능성을 갖는다. 어떤 종류의 웨곡은 오늘날에는 대단히 일반적이고, 아마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모든 예술에 나타나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III장에서 논의한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의 특성인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키춰, 패스티쉬·페로디를 웨곡의 비속(Das Ge-meine), 혐오(Das Widrige), 희화(Das Komische)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월'은 자유의 영원성 대신에 부자유의 유한성을 표출하여 부정적인 것이 된다. 이의 대조는 '비속'이다. 비속성은 자유로운 분점의 모순이기 때문에 비속하지 않는 의미를 갖는다. 비속성과 혐오성이 있으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비속은 보통 '부적당'한 것이다.

(Fig. 19)는 속옷과 안경에 크게 새겨진 샤넬의 상표로 인해 과시적 소비와 속물적인 모습에서 그 통속



Fig. 19. Das Gemeine  
CHANEL (92s/s, Collezioni, p. 302)

성을 알 수 있다. 예술양식의 차원에서 보면 아방가르드가 기계주의의 비인간성을 가지며 키춰와 데카당스가 그 통속성이나 퇴폐적 이미지로 가장 많은 비속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현상 속에서 무언가 무서운 것, 소름이 끼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을 보게 될 경우, 이 현상에 대한 사르카즘적(냉소적) 태도와 예술을



Fig. 20. Das Widrige  
Corinne Cobson (94s/s, Collezioni, p. 112)



Fig. 21. Das Komische  
Agatha Ruiz de la Prada (1988, Barzaat, p. 471)

통한 그것의 풍자적 묘사는 유쾌한 웃음을 배제 시킨다. (Fig. 20) 공포에 질린듯한 인간의 모습을 프린트한 것이고 복식조형의 연계성을 찾아보면 앞에서 논의한 비정상적인 변형, 생략된 신체표현을 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데카당스가 가장 많은 혐오성을 내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3&gt; 복식조형에 표현된 추와 왜곡과의 관계

		왜곡		
		비속	혐오	희화
'예술양식'	복성	정신의 저속화, 통속성, 과장성 속물적, 퇴폐적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 을 연상시킴	이상과 모순, 유희성, 의외성, 냉소적
아방가르드	해학성, 실험성, 비인간성, 충격효과			
표현주의의 원시성	단순성, 미숙성, 왜곡			
그로테스크	공격성, 과장성, 회극성, 혐오, 충격효과			
데카당스	세기말적 염세 주의, 이국취향, 혐오			
키취	통속성, 비속성, 대중성			
파스티쉬 페로디	모방성, 풍자성, 유희성			

회극미는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 또는 질적인 모순에 근거하는 미로, 그 주관적 체험은 기대와 현실과의 모순이 의식되고 기대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던 심적 에너지가 급격히 흩어질 때 생겨나는 쾌감이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그 의외성에서 기인하는 놀라움이나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주체의 정관적 및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는 바에서 성립하는 미적 쾌감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모순에 근거하는 대조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Fig. 21).

복식조형의 예술양식으로는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키취, 패스티쉬·페로디의 거의 모든 양식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복식조형에 표현된 추와 왜곡과의 관계에서 그 유사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V. 결론

20세기말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원화의 현상으로 객체보다는 주체의 진실로 접근하고자 하는 주관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미적 범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추의 개념이 순수미와 동등한 위치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여러 예술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조형예술로서 복식에 표현된 추는 현대 복식에서 추의 특징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키취, 패스티쉬·페로디를 통해 각각의 어원, 발생상황, 특징, 미술사조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고 현대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고찰해 보았다.

미적 범주에서의 추개념 중에서 문예부흥기 이후 체계적이고 양식화된 이론을 제시한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이론을 근거로 현대복식을 조명해 본 결과, 외적 형식의 문제인 물형식성과 정신적, 내용적, 주관성의 문제로 다룬 내적형식의 부정확성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패션쇼의 충격효과, 성의 혼돈, 퇴폐성, 디자인 원리의 문제, 위치전환, 구성의 의도적 미숙성, 소재상의 문제, 착의의 모순, 신체과장으로 분류해 보았다.

왜곡의 풍자적 성격인 비속, 협오, 회화와 복식조형에서 표현된 추인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의 원시성,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키춰, 패스티쉬·패로디를 비교한 결과 정신의 저속화와 통속성, 과장성, 퇴폐적인 특성을 지닌 비속은 모두 해당되었고 인간성 말살, 죽음·공포·고통을 연상시키는 협오는 표현주의의 원시성과 그로테스크, 데카당스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상파의 모순, 유희성, 의외성, 냉소적인 회화는 데카당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증적 사진 분석 결과 1980년대 당시 대단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되었던 복식 디자인들이 현대의 시작으로는 매우 평이하여 오히려 전부한 경향을 보이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디테일이나 악세사리 등의 특이성으로 그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복식에서는 기존의 조화 개념에서 탈피하여 기본 형태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점차 인간의 욕구는 좀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추'에 대한 극단적 미의식은 더욱 선호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본 바탕이 된 로젠크란츠의 추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1850년대에 발표된 연구이고 미학의 총체적 분석하에서 성립된 분류이므로 이것을 현대 복식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에 접목시켜 조명해보는 자체가 어려움이 따랐기에 특히 <표 1> <표 2> <표 3>의 선적인 구분에 의한 도표는 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류이므로 앞으로도 철학, 미학 전반의 총체적 지식 위에 미술사적 관점과 복식의 비교 연구는 계속 연구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우리시대, 우리문화·정서에 맞는 독창적인 모티브로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새로운 미의 개념과 주관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부단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 참 고 문 헌

- 고현진, "현대페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994)
- 김원갑, "현대 건축 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9-76, (1991)
-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 현암사, pp. 190-193 (1992)
- 논장 편집부, 「미학사전」. 서울 : 논장. p. 405 (1988)
- 백기수, 「미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 서성록, 「현대미술의 구조 : 환원과 확산 : 고급예술과 대중문화, 예술과 삶의 거리 좁히기」. 서울 : Editions AP1, pp. 185-199, (1993)
- 양희석, 「예술철학(하)」. 서울 : 자유문고, pp. 218-238, (1988)
- Adorno theodor w., 홍승용(역), 「미학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pp. 82-89, 1984
- Calinescu, Matei. 이영숙 외 3명(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 시작과 언어, pp. 125-159 (1993)
- Cocks, Jay. Rap-Around the Globe, TIME. pp. 50-51. Oct. 19 (1992)
- Glockner, H. Karl Rosenkranz und K. Fischer, als Ästetic der Hehelschen Schule, S. 443-453. (1931)
- Hauser, Arnold. 최성만·이병진(역). 「예술의 사회학」. 서울 : 한길사. p. 335, (1991)
- , 백낙청·염무옹(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학-현대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p. 189, (1992)
- Metscher Thomas-Szondi Peter. 여준동·윤미애(역), 「헤겔미학입문」. 서울 : 종로서적, pp. 189-192, (1993)
- Wilson, Elizabeth. *Adored in Dreams-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1985
- 양숙희,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2-14 (1993)
- 윤순향,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진도, "현대 일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1-45. (1992)
- 이명재, "현대미술에 있어서 원시적 상징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1-45. (1992)
- 이정후,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안티페션(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 문. 1990.
- 이창윤, “19세기 상징주의 회화와 신화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진국, “사진 이미지와 키워의 그늘”, 「예술과 비평」, 1990년 제20호 여름.
- 천재욱, “현대예술사조가 조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최윤미,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 pp. 137-149, 1993